

북구 “‘더현대 광주’ 건축 인허가 지연 사실 아니다”

신정훈 구의원 “서류보완 요구”
TF팀 구성 법적 기준 따라 진행
“교통난·개발 사업 등 검토 필수”
“부족한 점 보완 즉시 신속 허가”

광주광역시 북구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절차 지연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신정훈 북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북구청이 ‘더현대 광주’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서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보완을 요구해 인허가

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더현대 광주’는 광주에 처음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교통·재해·환경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법령에 따른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북구는 지난달 9개 부서 16개 팀으로 TF팀을 구성했고 모든 과정은 국토계획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의 교통량과 누문 구역, 양동3구역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연간 70회가 넘는 경기가 열리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유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또 더현대 부지 반경 2km 내 약 1만 6000여 세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난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불편 및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구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통, 재해, 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요청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이는 사업 지연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

래세대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유스퀘어 문화관이 개관할 당시 일대 교통이 마비됐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복합쇼핑몰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구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35개의 유관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완사항 이행 및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5월4일 ‘시끄러운 날’ 행사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도서관에서 ‘시끄러운 날’ 행사를 개최한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4일 운남어린이도서관에서 ‘시끄러운 날’ 행사를 연다.

시끄러운 날은 조용히 해야 하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간대별로 풍선 마술쇼, 각종 체험 행사 등이 준비됐으며, 도서 대출 두 배로 날과 연체자 해제 행사도 함께한다.

또한 같은 날,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도 함께 시작하며, 지역 내 주소를 둔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이 있는 가정은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운남어린이도서관 관계자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이 언제가 가고 싶어 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끄러운 날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서구, 30인 이상 사업장 4곳
5월16일까지 전자우편 접수
‘정신건강검사’ 등 회복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추진한다.

27일 서구는 다음달 16일까지 ‘마음톡톡(talk talk)’ 서구 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 등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서구가 직장 또는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정신건강검사’와 ‘마음건강주치의 상담’, ‘정신건강 강좌’, ‘원예·아로마 프로그램 등 마음 회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당뇨와 혈압 측정 및 금연상담 등 신체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구에 소재한 30인 이상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 등은 서구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지난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많은 기관이 함께해 건강한 직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기관 4곳을 선정해 직장인 560명에게 정신 및 신체 건강검진, 아로마 테라피, 행복 푸드트럭 등을 지원했다.

윤준명 기자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진
북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오늘부터 모집·30개소 선발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술을 접목한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트테리어’는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지역의 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결한 뒤 특색 있는 디자인을 활용한 점포 내·외부 환경 개선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28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총 30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달 중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 심사(40점)로 1.5배수를 선정한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현장 방문 심사(60점)를 통해 사업장 관리상태,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의 예술가와 1대1 매칭을 통해 점포의 간판, 어닝, 벽면 페인팅, 쇼윈도 디자인 등 내·외부 시설 개선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원내에서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지역예술가는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이면서 시각 예술 분야 및 인테리어 분야 전공자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북구는 올해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점포에 예술을 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깊숙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 남구가 가로환경관리원 채용시에 체력인증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체력측정 준비를 하는 모습.

남구청 제공

남구, 가로환경관리원 채용 시 체력인증제 도입

광주광역시 남구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가로환경관리원 채용시 국가 공인 기준을 적용한 체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로환경관리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 부담을 덜

기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체력 검정 방식을 대신해 국민체력 100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국민체력 100 인증제는 체력 검증의 공정성 확보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응시자가 체력 측정에 참여해 안전사고 발생으

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국가 공인 기준 적용으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여지도 없고, 체력 측정 장비 대여와 장소 섭외에 필요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동구, ‘도심 주차난 해소’ 공유주차장 확대 나서

동명교회 등 협약, 50면 개방예정
5개소 308면 확보, 확대추진 계획

광주광역시 동구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주차장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동구는 지난 24일 광주동명교회 등 2개소와 공유주차장 지정·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구 소재 민간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해 주민과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체결한 곳은 광주동명교회와 자산동 716-3 부설주차장 등 2개소로 시설 개선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주민들에게 50면이 개방될 예정이다.

현재 동구는 주차장 공유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는 지난 24일 광주동명교회 등 2개소와 공유주차장 지정·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동구청 제공

총 5개소의 주차장 308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개방 의사가 있는 종교·민간 시설, 학교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유주차장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